

이의리, 1군 담금질… 퓨처스리그서 151km 복귀전

작년 토미존 수술 후 첫 등판
두산전 2이닝 비자책·4삼진
7월께 복귀…선발 안정화 기대
“잘 던져서 팀 승리 보태겠다”

TIGERS 36년 만에 KIA 타이거즈가 배출한 신인왕 이의리가 내측측부인대 재건술(토미존 수술)을 마친 뒤 1년 만에 1군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의리는 22일 함평-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2군) 두산 베어스 2군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출전했다.

이날 이의리는 2이닝 2피안타 1실점(비자책) 1사사구 4탈삼진을 기록했으며 9명의 타자를 상대로 최대 시속 151km의 직구(21개)와 체인지업(8개), 슬라이더(7개), 커브(3개)를 골라 던지며 두산의 타자를 요리했다.

그는 1회초 선두타자부터 볼넷을 내줬지만, 주자 3명을 낮아웃 삼진을 포함해 3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마운드를 지배했다. 이어 2회초 연달아 2명의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해 1실점한 뒤 뜬공, 삼진, 파울 플라이로 위기 상황을 정리한 뒤 이형범으로 교체됐다.

광주일고 출신으로 지난 2021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해 첫 시즌부터 1군 선발 자리를 꿰차며 1군 통산 80경기(393.2이닝)에서 26승 22패 평균자책 3.89를 기록한 대표적인 영건 좌완인 이의리는 빠른 공과 예리한 변화구를 바탕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며 2022~202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올렸고, 국가대표로

도 활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KIA 선발진의 한 축으로 시즌을 시작했으나 시즌 초반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1군에서 말소됐다.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 이범호 KIA 감독이 경기 출전을 멈추고 점검을 하자고 했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1군과 2군 모두가 그에게 덕담과 진심어린 조언 등으로 재할에 전념할 수 있었고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찰나 재할 기간 동안 기본기에 집중했다.

토미존 수술로 인해 1년 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이의리는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공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평소 연습 피칭에서는 시속 146km까지 나왔던 직구가 경기를 앞두고 긴장했던 탓에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몸 상태도 많이 올라왔다. 전력 피칭이 가능하고 공을 던지고 난 뒤에도 피로감이 따로 없다.

다음 목표로는 우승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거두는 동안 함께 하지 못했다. 자신이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해서 팀이 못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선수로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현재 2군에서 매일 던질 수 없어 던지는 빈도 수가 긴 가운데 퓨처스 리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닝과 투구 수를 늘린 다음 1군으로 콜업될 계획으로 대략적인 복귀 시점은 다음달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난 뒤에야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더위 속 선발 로테이션으로 인한 체력 관리와 잦은 불펜 소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리의

복귀는 KIA로서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좌완 자원이 부족한 팀 사정상 선발진 안정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리는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수월할 일 없이 건강하게 잘 던져서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갑용 KIA 2군 감독은 “수술 이후 첫 실전 경기였는데 마운드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보다는 선수 본인이 던지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좋았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다음 등판에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지난해 4월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국 핸드볼, 한일전서 남녀 동반 승리

한국 남녀 핸드볼 대표팀이 일본과의 정기전을 나란히 승리로 마무리하며 아시아 정상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남녀 핸드볼 대표팀은 21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한일 핸드볼 국가대표 슈퍼매치에서 남자부 27-25, 여자부 29-25 승리를 거뒀다.

최근 남녀 성인 대표팀 모두 일본을 상대로 백중 열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던 한국이었지만 두 경기 모두 승리를 따냈다.

한국 남녀 핸드볼은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은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여자 대표팀도 8강에 머물면서 2022년 남녀 모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며 최근 약 3년간 외국인 감독 체제로 운영됐다.

남자는 홀란두 프레이타스(포르투갈) 감독이, 여자 대표팀 사령탑에는 김 라스무센(덴마크) 감독이 선임됐다.

이후 라스무센 감독이 불과 반년 만에 사실상 경질되면서 2023년 초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부임했다.

하지만 남자 대표팀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5위에 머물렀다.

여자 대표팀 역시 파리 올림픽 본선에는 나갔으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지난해 아시안선수권에서 모두 우승을 일본에 내줬다.

결국 대한핸드볼협회는 외국인 감독 체

제를 사실상 거둬들이고 남자 조영신(상무), 여자 이계청(삼척시청) 감독에게 한국 핸드볼 재건의 임무를 맡겼다.

4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조영신 감독은 21일 일본전 승리 후 “내년 1월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서 일본과 다시 붙어보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좋은 성적에 이어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남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가 마지막이고, 올림픽 본선 진출 역시 2012년 런던 이후 소식이 없다.

여자 대표팀은 올해 11월 세계선수권, 2026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2027년 LA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통과가 가장 큰 과제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1984년 LA 대회부터 지난해 파리 대회까지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나갔지만, 최근 일본 전력이 급상승해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내 감독들이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대표팀 소집 기간이 길어져 한국 핸드볼의 강점인 조직력을 다질 기회가 늘었다는 것이 호재다.

이계청 감독은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로서 사명감, 책임감을 강조하며 하나 된 팀을 만드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아시아 정상 복귀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

민현기 기자·연합뉴스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내일부터 광주서 열린다

세계양궁선수권 테스트 이벤트
고등·대학·일반부 선수 600여명
광주국제양궁장, 5·18민주광장서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테스트 이벤트인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가 24일 공식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29일 결승전까지 6일간 광주국제양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양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여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선수 600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2017년부터 ‘양궁 메카’ 광주에서 7년 연속 개최된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지난해 광주국제양궁장 확장공사로 인해 잠시 멈

췌다가 올해 다시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특히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직전 테스트 이벤트 경기로 치러져 예선전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29일 전 종별 결승전은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결승전은 생중계 방송으로도 일부 진행되며, 다음날인 30일은 2025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번 대회 일반부 우승팀 간의 단체전 특별 이벤트 경기도 펼쳐진다.

대회는 1440 라운드 및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눠 시·도 대항,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 승자를 가린다.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은 국가대표 이승운이 포진한 광주 남구청(남자부), 국가대표 김수린이 속한 광주광역시

청(여자부), 국가대표 안산·전 국가대표 최미선이 창단멤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여자부)이 일반부에서 ‘금빛 시위’를 당긴다. 대학부에서는 광주여대(여자부)와 조선대(남자부)가, 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남·여부)가 각각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편 22~23일에는 전국 양궁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제36회 전국 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이번 초등부 대회에서는 컴파운드 부문이 신설되며, 양궁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발굴에도 의미를 더한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유촌초(남·여), 성전초(남), 염주초(남·여), 두암초(여), 문산초(남·여), 삼정초(남) 등에서 남자 5개팀·여자 4개 팀이 출전한다.

최동환 기자

전남 근대5종, 문체부장관기서 다메달 수확

금 4·동 2 등 6개 메달 획득

전남 근대5종 선수단이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다메달을 수확했다.

22일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근대5종 선수단은 지난 18일 전남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전남도청은 대회 주역이었다. 양우승·박상구·이동기·조예준이 남자 일반부 4종(펜싱·수영·레이저런(사격+육상)) 단체전에서 총 3441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영하·서창완·양우승은 4종 릴레이에서는 총 1121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양우승은 2관왕에 오르며 팀의 선전을 이끌었다.

꿈나무들의 활약도 빛났다. 장성 사창초 황채원은 여자초등 3~4학년부 근대2종(수영·육상)에서 539점으로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전남체육중 김민재·서광진·김단오·양진석은 남자중등부 근대2종 단체전에서 2371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체육중 김민재는 남중부 근대2종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전남체고 곽동규·김강영·허민준은 남고부 계주에서 동메달을 각각 따내며 전남의 메달 행진에 힘을 보탰다.

최동환 기자